



보도시점 2023. 4. 19.(수) 16:00 배포 2023. 4. 19.(수) 08:0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허물어 첨단융합산단 물꼬 한덕수 총리, 전남경제에 규제개혁 큰 선물

- 포스코, 광양제철소 4.4조 투자로 화답...전남 역대 최대규모
- 전남 광양제철소 미래신성장산업 분야 대규모 신규투자
- 일자리 매년 9,000개 ...국가 균형 발전 앞당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수),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포스코에서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 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인해 그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4조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산업분야의 최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이다.

- 포스코는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매년 약 9천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 참석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 점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일시/장소** : '23.4.19.(수) 14:30 / 광양제철소 및 동호안 부지(포스코 투자예정지)
  - **참석** :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정현 군발위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전남 행정부지사, 광양시장 등
  - **내용** : 국가첨단산업 분야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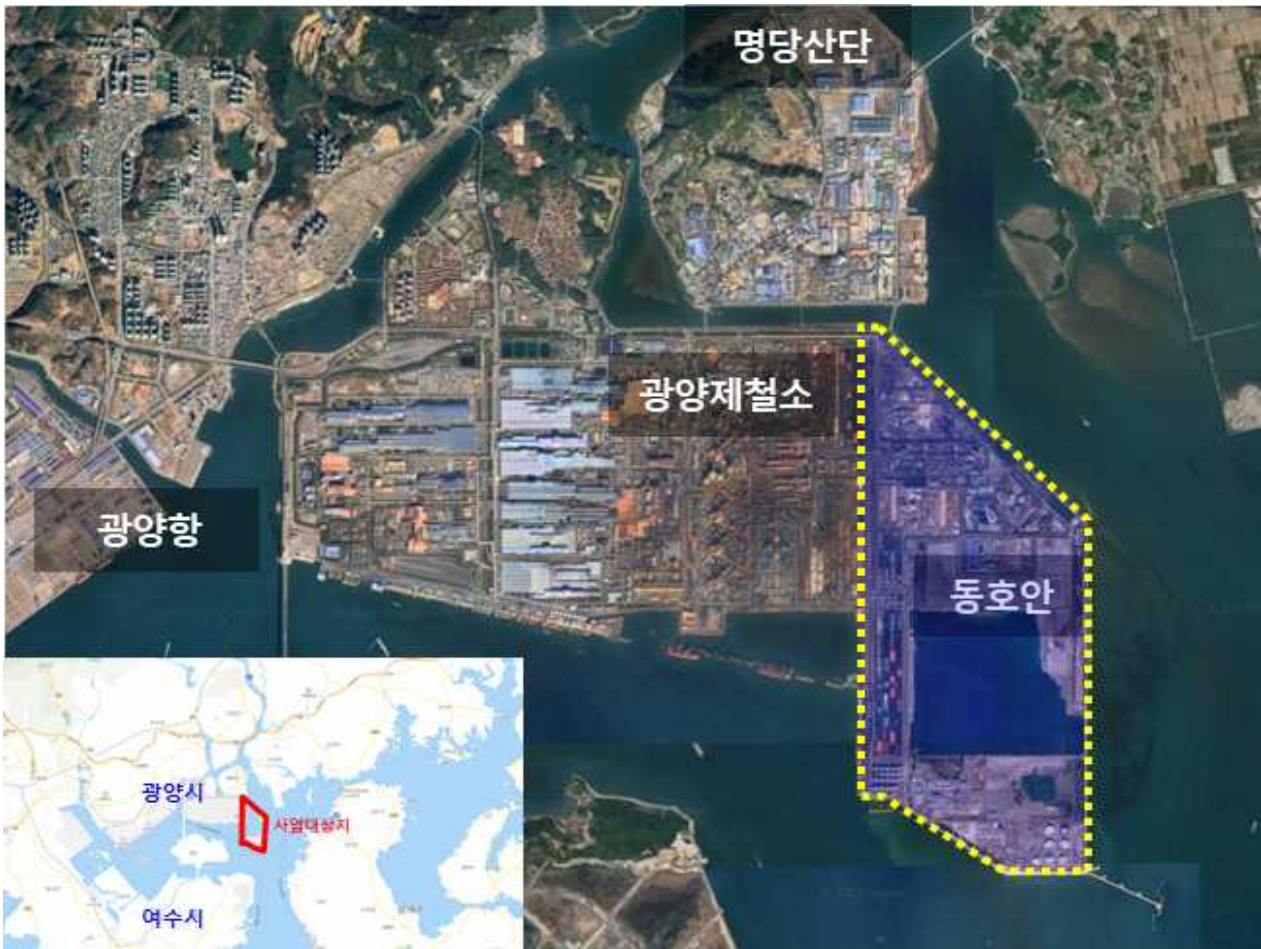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	책임자	과 장	임택진 (044-200-2630)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0-2634)
			사무관	이동진 (044-200-2638)



□ **개발계획**

- 개발목적: 광양제철소 설비확장에 따른 소요부지 확보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
- 개발위치: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동호안 일원
- 개발면적: 7,618,527㎡(230만평)
  - 기매립 162만평(사용중 135, 미사용 27), 공유수면 68만평
- 개발기간: 1989년 ~ 2050년
- 사업시행자: (주)포스코

□ **위치도**







김정은 포스코 겸임사장은 투자제한 부지 방문

# 朝鮮日報

2023년 4월 30일 목요일 2면

# 조선경제

2023년 4월 30일 목요일 B1면

### 포스코, 광양에 4조원대 투자

정부가 국가 산업안전 지원 규제완대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장 아·라 신공 생산 시설 등으로도 상당 투자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영아수 풀리는 것을 포스코가 아·라 신공을 신사업 부지로 전환하는 전남 광양을 찾았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원을 투자해 제철, 기타 8개

# 국무총리 지역투자 현장 방문

(2023. 4. 19. 전남 광양)

## 포스코, 광양에 4.4조 투자... 2차전지·수소 단지 만든다

### 국가산업단지 규제 완화 포함

정부가 10선년 4조원대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대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장 아·라 신공 생산 시설 등으로도 상당 투자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영아수 풀리는 것을 포스코가 아·라 신공을 신사업 부지로 전환하는 전남 광양을 찾았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원을 투자해 제철, 기타 8개



광양에서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총리 방문 현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투자제한 부지 방문 중 포스코 사장이 김정은 국무총리에게 투자제한 부지 방문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총리에게 투자제한 부지 방문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총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투자제한 부지 방문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총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투자제한 부지 방문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총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투자제한 부지 방문을 소개하고 있다.

# 매일경제

2023년 4월 30일 목요일 1면, 13면

### 포스코 광양에 4.4조 투자

정부가 국가 산업안전 지원 규제완대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장 아·라 신공 생산 시설 등으로도 상당 투자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영아수 풀리는 것을 포스코가 아·라 신공을 신사업 부지로 전환하는 전남 광양을 찾았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원을 투자해 제철, 기타 8개

## 포스코, 매출 100조 미래 소재기업 꿈꾼다

광양에 16년간 4.4조 투자 집행한 '철강 넘어 소재' 국가경제 도약에 기여할 것

포스코가 16년간 광양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포스코가 16년간 광양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 한국경제

2023년 4월 30일 목요일 1면, 5면

### 포스코, 광양에 4.4조 투자

정부가 국가 산업안전 지원 규제완대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장 아·라 신공 생산 시설 등으로도 상당 투자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영아수 풀리는 것을 포스코가 아·라 신공을 신사업 부지로 전환하는 전남 광양을 찾았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원을 투자해 제철, 기타 8개

## 포스코, 제철소 땅을 '2차전지 메카'로 - 일자리 9000개 만든다

포스코가 16년간 광양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광양에서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총리 방문 현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투자제한 부지 방문 중 포스코 사장이 김정은 국무총리에게 투자제한 부지 방문을 소개하고 있다.



포스코가 16년간 광양에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 포스코는 10선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철강, 고철, 니켈, 수소, 제철 등 10개 사업장을 건설했다.